

#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8월 취업자 수가 59만 4천 명 증가(전년동월대비)하여, 5~6월에 다소 둔화되었던 고용호조세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8월 평균 58만 5천 명 증가
  - 201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1분기에 이례적인 성과를 낸 후, 세월호 여파 등으로 5~6월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각각 41만 3천 명, 39만 8천 명 증가)되었다가 7월부터 회복하기 시작
  - 최근의 우수한 고용성과를 가져온 대부분의 요인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채용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율 확대, 임시직 증가 등이 주요 특징들 가운데 일부
  -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증가(1~8월 평균 고용률은 60.1%로 역시 0.8%포인트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65.7%로 1.1%포인트 상승(1~8월 평균 고용률은 65.2%로 1.0%포인트 상승)
  - 2013년 초반 이후 지속되었던 고용률 증가폭 확대 추세가 2014년 들어 둔화되었다가 7월부터 2개월 연속 확대
  - 실업자 수는 89만 명으로 10만 7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3%포인트 상승하여 실업자 증가 및 실업률 상승이 9개월 연속 지속
  - 실업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29만 7천 명 감소, 증가율 -1.8%)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주로 반영

- ◎ 이러한 8월의 취업자 증가폭 회복은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들이 지속된 데에 주로 기인
  -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은 (1)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 (2) 최근에 나타난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요인들의 지속, (3)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 (4) 기저효과, 그리고 (5) 기타의 요인들
    - (1) 장기·구조적 측면: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증가 지속
      - ※ 다만 최근 6개월여 기간 동안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임시직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증가
    - (2) 최근 특징: 중소기업, 서비스업, 여성 위주의 고용성장
    - (3) 경기회복: 서비스업 임시직 등의 고용증가
    - (4) 기저효과: 1월과 2월의 월등한 고용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에도 일정 부분 기인
    - (5) 기타: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성과
  
- ◎ 2014년 8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난 4개월 동안 감소하던 신규채용이 증가로 반전하였다는 점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가 12만 9천 명 증가
  - 신규채용은 2013년 9월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였으나, 2014년 4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5월에 큰 폭으로 감소(23만 4천 명)한 데 이어 6월과 7월에도 감소세 지속
  
- ◎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
  
- ◎ 먼저 연령집단별로 볼 때, 여전히 5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지난 해 9월에 이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43만 4천 명 증가(50대 23만 5천 명 증가, 60세 이상 19만 9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취업자 증가를 주도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5만 5천 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14만 7천 명

- 증가하여 8월의 고용성과에 크게 기여
- 청년층을 세분하여 보면, 20대 청년의 취업 증가가 11만 6천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0대 청년의 경우도 다소 증가(3만 1천 명)
  - 20대 청년 가운데에도 20대 전반(20~24세)의 취업자 수는 14만 8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는 오히려 3만 3천 명 감소
  - 20대 전반 청년층과 후반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인구 증감(20대 전반 인구 증가(6만 4천 명) 및 20대 후반 인구 감소(4만 2천 명 감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20대 전반은 인구 증가폭의 두 배를 넘는 정도의 취업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 연령대의 고용률 증가로 직결
    - ※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졸업생(상용직 중심)과 재학생(임시직 중심) 모두에서 증가(졸업생 2.9%포인트 상승, 재학생 3.2%포인트 상승)
  - 20대 후반 청년층은 그동안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수준이 70%에 근접한 상황인 반면,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2006년에 50%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경제전체 고용률 정체의 주범으로 인식
  - 이러한 20대 전반 청년층의 우수한 취업성과는 고용률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 ◎ 여성의 고용성장 주도 지속
- 여성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하여 29만 4천 명 증가에 그친 남성의 경우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
  - 여성이 2013년 7월부터 남성을 뛰어 넘어 전체 고용성과를 주도하기 시작하다가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남성이 여성을 추월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에도 여성 취업성과가 매우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3월 이후에도 남성을 추월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성과
  - 여성이 남성을 능가할 정도로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현상은 최근의 고용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 ◎ 고용률의 증가폭은 3월 이후 둔화되어 왔으나, 7월에 이어 8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용률 상승
  - 2013년 들어 회복되기 시작한 고용률은 이후 증가폭을 더욱 확대하여 왔는데, 올해 3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7월에 이어 8월에도 증가폭이 다시 확대
  - 남성 고용률이 71.8%로 0.7%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여성 고용률은 50.2%로 0.9%포인트 상승
  - 거의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여성 20대 후반 제외)한 가운데 50대 고용률 상승 추세도 지속(50대 고용률이 74.4%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
  - 여성 20대 후반 고용률은 0.5%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주로 고졸 이하 학력집단의 고용률 하락(5.1%포인트 하락)에 기인
  
- ◎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둔화 및 임시직 증가폭 확대
  - 상용직 종사자가 32만 3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며, 임시직이 23만 2천 명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도 증가(5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2만 8천 명 감소
  - 상용직 증가세 둔화는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 종사상의 지위로 본다면 임시직 증가폭 확대가 7월에 이어 8월 고용성과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
  - 그러나 최근 7년 정도에서 임시직의 증가가 지속된 예가 없고(2009년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임시직 증가 제외) 대부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증가하고 있어서,
  - 세월호 여파 등으로 5~6월에 증가폭이 감소하였던 임시직이 7~8월 들어 회복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임시직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도 여전히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8월에 그 기여도가 더욱 증가
  - 농림어업을 포함한 5개 업종 외의 모든 산업들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45만 1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증가를 주도

- ※ 고용감소 업종 :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공공행정(및 국방·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등
  -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특히 세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각각 16만 명, 12만 5천 명, 15만 9천 명 증가)가 서비스업 전체 고용증가의 98.4%를 차지
  -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4만 8천 명 감소하여 6월(4만 8천 명 감소)과 7월(4만 9천 명 감소)에 이어 고용불안이 지속
    - ※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 연도별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6월부터 감소 규모가 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
  -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도하여 왔으며, 8월에도 꾸준히 증가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는 여성 주도의 고용성장 및 돌봄 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1만 9천 명 증가하여 취업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크게 높였는데, 상용직만 늘고(24만 2천 명)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각각 21만 1천 명, 6천 명 감소)
  - 주목할 만한 하나는 제조업 20대 취업자가 7만 8천 명이나 증가하여 50대(9만 2천 명 증가)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
  - 건설업 취업자는 6만 4천 명 증가
- ◎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다가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증가폭도 12만 9천 명으로 상당한 정도
- 대부분 산업들에서 신규채용이 증가하였으나, 고용성과가 우수한 제조업의 신규채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은 축소(8월 1만 6천 명 감소, 7월 6만 9천 명 감소)
  - 신규채용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졌으며(13만 3천 명 증가), 대규모 사업체

에서는 감소(4천 명 감소)

- ◎ 중소기업 규모 사업체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 고용도 안정적인 증가를 지속
  - 중소기업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47만 7천 명 증가하여 최근의 중소기업 사업체 주도의 취업 성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위축되던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
  -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도 11만 7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에 상당히 기여
  - 취업자의 대부분(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다시 중소기업 사업체가 고용증가를 주도하기 시작
  -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증가는 최근 2년간 큰 등락을 보이지 않고 10만 명 정도에서 안정되어 선전을 거듭
  - 대규모 사업체에서 20대 취업자가 2013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그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8월에도 더욱 증가
  
- ◎ 고용증가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감소
  - 6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 1만 명 감소

###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5월 명목임금(임금근로자 전체)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고 실질임금은 0.0% 증가하여 전년동월 실적(각각 3.2%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4월 특별급여가 감소(전년동월대비 9.0% 하락)한 데에다 정액급여 상승률도 3.0%로 낮아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상승률이 전년동월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지속
  - 2014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5%로서 전년동월의 4.0%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7월 임금결정 진도율이 35.3%로 전년동월의 40.5%에 비해 미진
  - 특히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예년과 매우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임금관련 이러한 모습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 ◎ 2014년 1~6월 평균 명목임금(임금근로자 전체)은 2.4% 상승하여 전년동기(4.2% 상승)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 지속
  - 상용근로자의 1~6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도 2.5%로 전년동기의 4.1%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이 낮은 데에 주로 기인(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높으나,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동기 실적에 미달)
  - 1~6월 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총액(명목임금)도 1.4% 상승하는 데에 그쳐 전년동기 실적인 7.2%에 크게 미달
  - 실질임금(임금근로자 전체)도 1~6월에 1.0% 상승하는 데에 불과하여 전년동기의 2.8%에 역시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보다 낮은데도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
  
- ◎ 2014년 6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1.8시간 증가(1.1%)하였으며,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2.4시간 감소
  -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기와 같고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 초과근로시간은 0.7시간 증가(7.0%)하였으며, 1~6월 월평균 상용 초과근로시간도 0.8시간 증가(5.7%)

### 최근 해외 고용동향

- ◎ 한국은 고용률로 볼 때, 65%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63% 수준인 유로존보다는 우수하나, 67% 수준인 미국이나 72% 수준인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고용률(15~64세)은 최근 수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유로존의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미약한 회복세를 보임
  - 청년(15~24세)의 경우, 미국의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고, 일본 그리고 유로존 순인데, 미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

- 미국의 고용률은 더디게 회복되는 추세이나, 8월 들어 68.1%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증가
  - 한국 청년(15~24세)의 경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유로존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나, 유로존의 경우와 달리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어 격차는 축소
- ◎ 실업률로 보면, 유로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최근 들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과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 유로존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달
-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전체 실업률은 한국이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 지속
  - 최근 들어 일본 청년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 한국 청년의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양국의 실업률 격차가 경제전체로는 축소되어 별 차이가 없어졌고 청년의 경우는 격차가 더욱 확대
  - 미국의 8월 실업률이 6.1%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오바마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가 14만 2천 명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7월 들어 11.5%를 기록하여 다소 하락하는 모습
- ◎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가 우수한 반면, PIGS 국가들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독일의 고용률은 2014년 1분기에 73.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4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7.9%에 불과(경제전체 실업률은 5.0%)하며, 2014년 7월 청년 실업률은 더욱 하락하여 청년 7.8%를 기록(경제전체 7월 실업률은 4.9%)
  - 반면 스페인의 경제전체 실업률은 2014년 7월에 24.5%로 여전히 매우 높으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하락세를 보였던 청년 실업률은 53.8%로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014년 1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55.3%이고 청년 고용률은 16.6%에

### 불과

- 그리스의 2014년 1분기 경제전체 실업률은 27.3%로 높고, 청년 실업률도 56.5%로 매우 높으며, 월별로 보더라도 2014년 5월 실업률이 경제전체 27.2%, 청년 53.1%로 높은 상황인 반면, 2014년 1분기 고용률은 49.0%에 불과하고 청년 고용률은 12.1%로 열악한 가운데 스페인의 경우와 달리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는 상황